

봉암사결사 60주년 기념 대법회



봉암사 대웅보전에 앞 마련된 법단. 사진=박재환 기자

현장 이모저모

○...빗속에서 진행된 법회

법회가 시작되자 20여분 전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어쳐 경내가 어수선했다. 대웅전 앞마당에 깔아 놓은 자리가 비에 젖자 절거하는 소동을 빚기도. 결국 행사는 예정보다 10분 늦게 시작되었으며 참석자 사부대중은 고스란히 비를 맞았다. 하지만 점차 빗줄기는 잦아들어 법회 막바지에는 비가 거의 그쳤다. 비 때문에 예정했던 참석대중의 장례참석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종단 지정·참회 요구 높아

법회는 최근 종단 상황을 반영 하듯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는 기쁨 보다는 종단 구성원들이 참회와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

기 때문이다. 또 '부처님 법대로' 정신을 이어받아 제2, 제3의 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법회에 참석한 한 재가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현 종단 상황을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장윤·영배 스님 등 불참

봉암사에 참석 사부대중을 실은 버스만 200여 대 도착하는 진경을 보였다. 하지만 스님은 1000여명도 참석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또 계파정치의 진원지인 중앙총회의원스님 또한 20~30여명 밖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참회와 자정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장윤, 영배 스님 등 동국대 관련 스님들 또한 법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 봉암사·남동우 기자



참회문

우러려 발원하옵나니,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무릎 꿇고 지금 한 마음으로 예경의 향화를 올리며 귀의하옵니다. 오늘 봉암사 청정수행도량에 모인 저희 불문조종(佛門祖宗)의 후학들은 그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옵나니, 자비로써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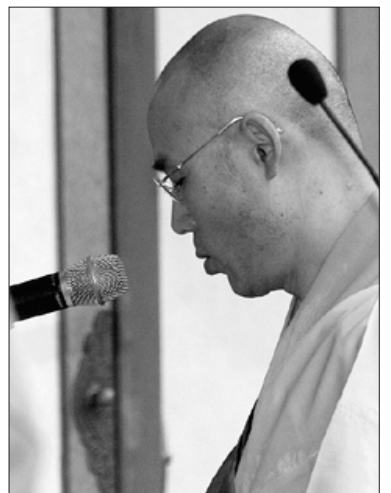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했고, 수행보다는 명리를 탐하였으며, 칭찬보다는 비방을 일삼았으며, 지혜보다는 지식 얻기를 즐겼으며, 화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행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과 방일만 늘어 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근에 불교계를 대상으로 한 세간의 평가가 일부의 그릇된 인식과 의도적인 음해의 요소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불교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의 현상을 단순한 외부의 음해와 몰이해로 구실삼아 무사안일한다면 교단은 더 큰 위기와 재앙에 휩쓸릴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대의 수행 정신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곳 봉암사 역사의 자리에서 예감

조계종 여기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이해와 아집으로 이를 그르침을 참회합니다. 4.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정진하라, 무명을 떨쳐라, 상을 버리라 외쳤지만 정작 우리는 게으름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5.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승가 공동체는 무엇보다 '화합'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음에도 편 가르기와 차별에 빠져들어 '화합'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6.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우리 내부에 작은 허물이 있을 때 바로 드러내어 치유하지 못하고 남의 일인 것처럼 무관심하여 수방수관하고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며 냉소하였음을 참회합니다. 7.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옹양정진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거늘, 명예와 이익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8.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율장의 전통과 종헌 종법의 질서가 우리 스스로 존중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에도, 우리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간의 질서와 규율을 더 집착하였음을 참회합니다. 9.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이 참회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이 참회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부끄러이 여길 줄 알며 남을 기꺼이 존중하고 칭찬하여야 함에도,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하였음을 참회합니다. 10.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큰스님들의 결사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허물을 가슴깊이 참회합니다.

(하락)

불기 2551년 10월 19일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 동참대중 일동 전문은 Buddhaneews.com에서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 미지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대승기신론 해동소·별기 만을 독보적으로 심층 연구 강의하는 곳. 원효센터 개관. 경원효센터 개관. 海東疏·別記 6회회원 수강신청 받습니다. 4,5회회원 현재 수강중. 개강안내: 법사: 공파스님, 개강: 11월 2일(금) 오후 8시, 장소: 원효센터 智慧光殿, 기간: 1년, 인원: 선착순 20명, 입학비: 10만원, 월회비: 10만원. 법회안내: 1부: 단체 예불 및 정영염불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반, 2부: 대승기신론 해동소 별기 4기 수강 중 /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반, 3부: 일반신자, 기초교리 및 정영염불 / 신행 중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반. 공파스님 저서: 부처님의 유언, 천수경의 원본경전, 극락세계 1, 2, 3, 원효전집 6권, The Vajra Sutra(영판), 바이로차나 1, 그 외 다수. *11월 2일(금) 오후 8시에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